

하나됨과 나눔

##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 16일(월) 0시부터 24일(화) 24시까지 연속기도회가 있습니다  
대강절 연속기도회 표는 자연예배당에 붙어있습니다.
- 공동체학교들이 방학을 하고 기말평가 학부모면담 중에 있습니다.  
방학일 : 꾸러기학교 (18일) 어린이학교(12일) 멧쟁이학교(7일)
- 어린이학교 6학년 졸업여행이 19일(목)~20일(금), 충남 예산에서 있습니다.
- 성서일기 범위가 스가라서로 바뀌었습니다.

###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 감사 )  
김종훈 · 장미라 집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50 호

2024년 12월 15일

# 사랑방공동체

## TK2000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피부가 찬바람에 찌릿하면서도 어는 듯한 찝찝함을 느끼게 되는 겨울입니다. 무림리 날씨에 많이 적응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겨울의 차가움은 적응이 안 되는 듯 합니다. 바깥의 날씨는 정신이 바짝나게 합니다.

어렸을적 겨울이 되면 기다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거리로만 보이는 눈이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눈이 내려 세상을 하얗게 뒤덮으면 포근한 날씨와 함께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방학입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쉼을 기다렸습니다. 주어지는 방학과제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부랴부랴 눈물을 머금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난로나 모닥불입니다. 추울 때면 교회에 모여 난로에 불을 켜고 둘러 앉아 간식이나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수다떨고 놀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시끌벅적 사람들이 모여 성탄전야를 준비했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선물을 받기도 하고 새벽송을 돌면서 찬양하고 새해복 받으시라는 덕담을 함께 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거나 즉시 전화나 문자연락으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도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옵니다. 재난상황도 실시간 뉴스나 문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을 시켰을 때도 빠른 시간에 도착하며 예상 시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 갈 때도 그렇습니다. 네비게이션으로 빠른 길과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소중함을 알고 진실 됨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버리지 않으셨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았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본적이 언제인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배달음식을 기다리거나 주문한 물건이 택배로 오는 것만을 기다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방 공동체에서는 대강절 기간에 연속기도를 합니다. 이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기다립니다. 또 한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획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목사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빠르고 간편하고 쉬운 방법에 익숙해지다 보니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가는 시간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이번 대강절 연속기도회를 통해서 기다림을 다시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사용한 만큼 기다림에 의한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 의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랑방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한주간 말씀

“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  
< 이사야 12장 6절 말씀 >

## < 수요일기도회 >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12, 114 / 35

기도 : 서병욱 집사

성경 : 에스겔 46장

제목 :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질 새로운 예배

1. 내용: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의 규례 (What)

<문단구분>

- 1~12절 안식일과 초하루 예배
- 13~15절 상번제 제물의 규정
- 16~24절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부역들의 위치와 규모

2. 의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것이다. (Why)

- 1) 예배의 날짜를 구별하셨다.
- 2) 예배의 장소를 구별하셨다.
- 3) 성전의 동선을 정해주셨다.

3. 적용: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질서를 지키자. (How)

- 1)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예배와 성실한 삶을 살아가자
- 2) 주일을 온전한 하루를 구별하자.
- 3)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자

## 요즈음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또 물은 만물을 길러주고 키워주지만, 자신의 공을 남과 다투려 하지 않지요.

그리고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흘러 늘 겸손을 일깨워주고 있지요.

짚는 개는 물지 않고 물려는 개는 짚지 않듯

대인은 허세를 부리지 않고 시비를 걸어 이기거나 다투어 싸우고자 하지 않지요.

시끄럽게 떠들고 이기고자 함은 속이 좁은 탓에 빚어지는 허세일 뿐이며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은 알아도 모른 척하며 자신의 재주를 과시해 돋보이려 하지 않아요.

옛말에 침묵이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후에

새싹이 돋어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과 같다고 했지요.

그래서 침묵이란 긴 인내와 희망을 필요로 하는지도 몰라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누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고,

또 자신을 알리지 못해 안달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3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 아니 70년이 걸린다고 하지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하 여수선한 세상이지요.

침묵은 위대하고 정의는 죽지 않는다 했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 평화를 누려야 할 자손만대를 위해서도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정의'를 위해서도요.

새싹사랑방 김병우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미가서 5 : 2  
29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태복음 6 : 12-13

104, 125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이사야서 12 : 1-6  
112

설교자  
새싹사랑방  
정재훈 목사

교 “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십시오 ”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249

438(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조향민 최신혜 / 봉헌위원 : 장성아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십시오

그날이 오면. 이사야 12장에서 회복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됩니다. 흠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선포합니다. 높으신 이름과 자신들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온 세상 만민에게 찬양하며 알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는 노래가 되어서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감격.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참고 품어주는 희생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희생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시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다림의 절기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체육시간에 줄넘기를 했습니다. 이미 줄넘기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꾸러기도 있고 천천히 줄을 돌려놓고 두 발로 뛰어넘고 또 줄을 돌려놓고 뛰어넘으며 연습하는 꾸러기도 있고 아직은 줄넘기가 너무 어려워서 줄 따로 돌려보고 줄 내려놓고 두발 모아뛰기만 열심히 연습한 꾸러기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연습을 땀이 나고 목이 마르도록 합니다. 체육을 한 다음날 아침에 서로들 힘든데도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이야기를 역할극으로 해보았습니다. 꾸러기가 다섯 뿐이라 방학한 멋쟁이 세 명이 와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는 역할극이지만 마리아, 요셉, 천사, 목자, 동방박사가 되어 나름 대사를 외워보고 분장도 하고 소품도 챙기고 여러 번 연습도 했습니다. 장난꾸러기들은 어디로 가고 모두들 진지한 모습입니다. 꾸러기 선배인 멋쟁이는 꾸러기 다닐 때 자신이 맡았던 역할과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멋진 별이나 하트를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 예수님,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것, 카드를 받을 사람, 멋진 성탄 트리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목요일 저녁 7시, 어린이학교 학년말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발표회 제목은 '어린이책방'. 11월 중순 쯤 어린이자치회의에서 결정된 제목입니다. 제목에 맞춰서 1학년 가람이는 <여행일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요. 겨울왕국 엘사 차림으로 등장한 가람이가 1년 동안 경험한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3학년들은 <스크루지와 크리스마스> 연극 공연을 했는데 모두들 어찌나 열연을 하는지 보는 내내 웃음 짓게 만들어줬어요. 4학년은 <내가 배운 영어 책>을 들려줬는데,(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말했답니다) 우리 4학년 친

배움과 가르침

구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영어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어요. 5학년은 책 중의 책 <성경책>의 한 구절로 시작해서 흥겨운 워십 댄스를 보여줬고, 6학년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무대에서 해설해주고 <6학년은 무엇으로 사는가>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너무 근사하고 멋진 쟈메 카혼, 칼림바, 리코더, 그리고 풍물 연주, 오프닝을 화려하고 힘차게 장식한 필라테스, 관객들에게 사랑과 훈훈함을 전한 '참 좋다' 합창까지 무료 공연치고는 너무 멋진 공연이었답니다.

발표회를 위해 곁에서 여러 모양으로 애써주신 공동체 식구들, 맛있는 간식 선물까지 보내준 동문 선배님들,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시고 늘 응원과 지지로 함께 해주시는 어린이학교 가족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린이들은 겨울방학이 시작되었고, 학기말 면담은 어제(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말 면담은 화요일까지 있는데 학교와 가정 모두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주세요.

< 교사 : 전선희 >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는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많은 멋쟁이들은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방학계획을 조금씩 실천하는 멋쟁이들도 있고, 미뤄두었던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맘껏 즐기는 멋쟁이도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부모님 기말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짧게는 이번 학기부터 길게는 올 한 해 동안의 모든 과정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멋쟁이들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여러 특별한 에피소드를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는 각 시간엔,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가슴 속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편안한 휴식을 누리면서, 부모님께서 챙겨가신 자신의 방학계획표를 다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곧이어 방학숙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방학기간을 통해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의 경험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교사 : 이어진 >

## 공의의 하나님

내일부터 대강절 연속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오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공동체와 교육공동체에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청소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챙기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기도실에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에 항상 감사기도를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속기도 안내문을 받지만 이런 때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 고민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기도가 아닌 먼저 회개의 기도, 사랑방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하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러 들어가서는 잡생각으로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시간이 모자라도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대강절은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드리는 기도이니, 감사의 기도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땅에 평화와 더 많은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혹시 나에게 주님의 공의를 가로 막는 것이 있다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성탄의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글을 쓰면서 기도해 봅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윤희 권사

## < 수요 정오기도회 >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101장, 104장

성 경 : 이사야 11장 1-9절

말 씬 : 주님을 경외하는 썩의 열매

중보기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중동의 평화를 위해>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어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에 의해 과도 정부가 세워졌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정권 붕괴의 틈을 타 지상군을 투입하여 군사장비를 제거하려고 했다. 각 국의 시리아 난민은 650만명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국사회의 안정을 위해>

- 1) 한국사회의 정치적 상황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데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 2) 한국교회와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추워진 날씨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약자들)
- 2) 어린이학교 종강발표회를 위해
- 3) 대강절 연속기도회를 위해

## < 생활공동체 소식 >

날씨가 추워지면서 움추려들게 되는 요즘이지만 어린이학교 종강 발표회등 좋은 행사들이 있어서 사랑을 나누며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밭에서 끝까지 자라고 있던 당근을 뽑고 밭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겨울살이에 들어갑니다.

각 학교의 학부모 면담과 대강절 연속 기도회와 성탄 준비 등 여러 일들로 분주한 일상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체들이 있어 공동체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장영미 전도사>